

[기획]



지방선거 D-6 목포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광주일보·KBC 공동

‘김대중운하’ 건설·무안반도 통합 공방

광주일보와 KBC는 24일 오후 6시 열린우리당 김정민, 한나라당 천성복, 민주노동당 박기철 후보 등 목포시장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대중 운하’ 건설, 무안반도통합 등과 관련 열린 토론회 이어졌다. 민주당 정종득 후보는 상충정책토론 방식에 있어 상대 후보의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참했다.



김정민
열린우리당

“연합도시 경제 파급효과 크다”



천성복
한나라당

“중소 상인·영세기업 지원에 총력”



박기철
민주노동당

“공공보육시설 동마다 한개씩 설치”

민주당 정종득 후보는 토론회 불참

◇ 모두발언

▲박기철=목포는 도시 환경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등 소비항락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영세상인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20년간 노동·교육·공공의료 영역에서 초지일관 서민들과 함께한 저를 뽑아달라.

▲김정민=국가청렴위가 연 2년째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부패한 도시로 발표된 만큼 문제가 많다. 지역경제 전문가로 지난 26년 목포발전을 생각해왔다. 잘사는 목포를 만들기 위해서 4번씩 시장에 도전했다.

▲천성복=목포 발전을 위해 제1야당이며 차기집권이 확실한 한나라당 후보인 저를 뽑아달라. 목포시장에 당선되어 중앙당과 충실한 가교역할을 하겠다.

◇ 후보자 상호 정책토론

▲김정민=국내 최초의 관광 운하를 건설하겠다. 기존의 삼양천, 철도폐선부지, 죽교천을 연결시키면 최소 비용으로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까지 아우르는 연합시 건설하겠다. 시민문화체육센터를 국제문화언어센터로 개조하겠다. 세계20개도시와 자매결혼을 맺어 자신들의 문화관에 투자하도록 만들겠다.

▲천성복=‘김대중 운하’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말해달라.

▲김정민=운하 건설 비용은 2천억이 소요된다. 수로를 따라 여섯 개 테마별로 거점건설을 하면 약5억6천억원이 들어간다. 운하건설은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할

것이다. 일부는 거점에 대한 개발권을 주는 조건으로 민자건설을 유인할 것이다.

▲박기철=‘김대중 운하’ 건설과 일자리 2만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이전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우선 해결해야 되는데 의지가 있나.

▲김정민=IMF를 거치면서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노인들이 필요한 70,8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일자리만 창출하면 된다.

▲천성복=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중견기업 유치에 총력을 하겠다.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지원에도 힘을 것이다. 시민 복지를 위한 지원제도와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이다. 목포대학의 의과대학 병원 신설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김정민=무안반도통합을 공약했다. 어떤 계획이 있나.

▲천성복=무안과 목포가 통합이 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논리에 따라 통합이 지연됐다. 한나라당만이 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민=통합은 무안군민들의 반대가 많았기 때문이다.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까지 포함한 1시 4개군의 연합도시를 만드는 것이 더 낫다. 개별 시군구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지만 중요한 J프로젝트, 관광사업의 연대 등을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박기철=공공보육시설을 목포시 각 동마다 한 개씩 입기 내에 점차 확대하겠다. 단체장의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과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을 하겠다. 비정규직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다.

/정리=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전남도지사 후보 동행 인터뷰

열린우리당 서범석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는 24일 새벽 여수시 남산동 어시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힘있는 여당지사로 선수교체를”

“말만 앞세우는 도지사보다는 힘있는 여당 도지사 후보를 교체해야 합니다.”

24일 오전 11시, 여수 서시장 사거리. 한 여자를 방불케하는 땀 속에서도 서범석 열린우리당 전남지사 후보는 연신 땀을 흘리며 “이번 도지사 선거는 호남 100년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선거”라며 “중앙부처에서 활약하며 경험을 축적한 힘있는 여당 후보만이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 후보의 이날 유세에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 배기선, 장복식, 주승용, 김성근 의원 등이 지원 유세에 나섰다. 서 후보는 “지금 민주당 박준영 후보에 비해 지지율이 조금 저지지만 부동층이 3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역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지지율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교육 관료로 30여년을 보낸 서 후보는 정치인이라기 보다는 시장 아저씨 같은 순박한 모습으로 유권자를 대했다. 상인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도 입에 발린 공약보다는 말없이 웃는 표정으로 접근했다. 정동영 의장 등 의원들과 함께 시장통을 돌았지만 기성 정치인 특유의 낯살보다는 가끔은 어색한 표정을 지어 아직 정치 신인의 티를 벗지 못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유세장에서 열변을 토하는 열정은 대단했다.

이어진 여수시 부영 아파트 앞 유세에서 서 후보는 “전남지사에 당선되면 분열된 전남 민심을 통합하고 정권재창출의 토대를 닦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열린우리당 및 참여정부와 함께 도로, 항만, 공항, 철도 등 열악한 전남

의 SOC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특히 “도지사에 당선되면 여수의 스포를 책임지고 유치하겠다”며 “특히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 ‘떠나는 전남’에서 ‘들어오는 전남’으로 만들겠다”는 의욕도 보였다.

다음 유세는 서 후보의 고향인 광양. 고향에 와서인지 서 후보의 얼굴은 한결 밝아지고 편안해 보였다. 광양읍 로터리에서 서 후보는 정 의장 등을 옆에 세우고 “고향의 성원으로 교육인적부 차관을 지낸 서범석이 전남지사 후보로 나섰다”며 “광양과 전남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도로·항만 등 열악한 SOC 확충 최우선

“일자리 창출 ‘들어오는 전남’ 만들겠다”

주민들의 반응도 따뜻했다. 서 후보의 유세를 지켜보던 주민 김모(56)씨는 “인물

은 무난하고 좋은데 민주당 박준영 후보에 밀리는 것 같아 걱정이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광양에서의 짧은 유세를 마치고 서 후보는 순천으로 이동했다. 잠깐 짬을 낸 서 후보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고충을 토로한 뒤 “그러나 이 정도 어려움은 각오했으며 마지막까지 발로 뛰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순천 동부 상설시장에서 서 후보는 “교육 도시인 순천에서 전남 교육의 비전을 발표하겠다”며 “전남 각 군마다 명문고를 육성하고 영재학교를 신설, 자녀 교육 때문에 지역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방송 녹화를 위해 광주로 돌아가기 전까지 시장 상인들의 손을 놓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 후보의 모습에서 선거전의 피곤함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관련 대담·토론회에 적극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일부 유력 후보자가 토론회를 기피하거나 토론회 대신 합동방송연설회를 선호해 토론회가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유권자가 후보자를 비교·검증해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선관위, 대담·토론회 참석 ‘권고령’

후보자들 기피로 무산 사례 많아...공문 통해 참여 요청

위한 제도”라며 “후보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병원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후보자가 반드시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불참하면 공식선거법에 따라 중계방

송이 시작될 때 불참사실을 고지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법상 대담·토론회 참석대상 후보자는 ▲국회에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16대 대선,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2002년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에서 유효투표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후보자 ▲2002년 지방선거의 해당 선거구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자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30일간 언론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미 개최됐거나 앞으로 남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가 광역단체장선거 20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17회, 기초자치단체장선거 269회 등 모두 306회인 것으로 파악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난, 변하고 싶어

내가 변덕쟁이라구?
천만의 말씀!
난 싱긋하게 변하고 싶은 10대라구.
센스틱 쪽쪽뽕뽕이 있으니까
톡톡 터지는 멜론향과 새콤달콤한
과일향까지 - 입술이 변한다.
싱긋하게 -

아름다운 입술
SENSTICK
센스틱이 신세대 감각에 맞는 이유
- 혁신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상급한
- 변질할 위험이 적음으로 오래 지속됩니다
- 입술이 저하선으로부터 보호되어 입술
- 치료효과 및 트루스효과로 항상 생기가 넘칩니다.
- 그다만큼 위한 본인의 입술을 가꿔주세요.

가장 좋은 약은 사람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ipharm.co.kr